

AUTHOR 신원용

TITLE 개혁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IN 기독교사상연구

vol. 2 (February, 1995): 161-174

치중하므로 현대인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폐세지만 외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역으로 현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진리 자체를 왜곡해 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시대와 동떨어진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이라는 Luther의 경귀도 귀담아 들으면서 동시에 성경이 가르친 것을 조금이라도 ‘변경시키지 않은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과제를 지닌다. 이 모든 논의를 다음과 같은 솔로몬의 경귀와 함께 맺고자 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전 1:17).

## 개혁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Reformed Thought and Democracy

신원용

- I. 서론 및 문제 제기
- II. 목적
- III. 본론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국가의 임무
  3. 기독교인의 정치적 책임
  4. 국가와 교회의 관계
  5. 기독교인의 정치적 책임
  6. 개혁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 IV. 결론



신원용

한국외국어대학 화란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남이공화국 포체프스트롬(Potchefstroom)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사모는 부산 외국어대학 이태리어과 교수로 재직중에 있다.

## I. 서론 및 문제제기

이질적인 권위와 가치체계에 의해 다스려지는 지상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신자들은 부름받았다. 이 점은 교회와 신자들에 대해서 뿐 아니라 정부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에게도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이 갈등의 핵심은 바로 기독교인의 정치적 책임은 무엇이며,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다. 왜 이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가? De Gruchy(1986:15)는 세 가지 이유을 들고 있다.

첫째, 성경은 신자의 정치적 책임과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관해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둘째, 국가의 성격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 바뀌어 왔고, 이에 따라 교회의 형태도 변화했으며, 각각의 새로운 형태의 교회는 이 관계를 나름대로 해석해 왔으며 셋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정치적 행동이 오늘날까지 민족 간에 결코 풀 수 없는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웃과 더불어 평화와 사랑, 정의로운 삶이며, 피조세계 안에서의 청지기적 삶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일 것이다. 그렇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할 때, 우리 스스로가 만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강한 걸림돌로 가로막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어떤 정치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국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민주주의는 개혁주의사상에 어떤 작용을 했으며, 개혁주의 사상은 민주주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 II. 목 적

이러한 물음을 요약하자면 바로 아래와 같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사론(試論)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데 본 소논문의 목적이 있다.

- 1) “민주주의”라는 개념
- 2)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가의 임무

- 3) 교회의 임무
- 4) 국가와 교회의 관계
- 5) 신자의 정치적 책임
- 6) 개혁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상호간의 영향
- 7)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

### III. 본론

####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고대 희랍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적 산물이다. 일정기간 민주주의적 제도의 시행 이후 희랍인들은 다른 통치 형태로 대체했고, 그 후 다양한 통치 형태가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 진영이 민주주의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시점까지 지속되었다(Baradat, 1991:49).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개념은 정치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며,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정통성을 가진다는 점이다(Baradat:49).

Rauche(1988:3)에 따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주주의의 의미가 변해왔으며, 이 변화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통치”라는 정의는 희랍어의 문자적 번역, 즉 *demos*(people)와 *kratien*(rule)의 합성어에 불과하다고 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Rauche(1988:7)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국가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기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What is democracy?)라고 묻기 전에 먼저 “왜 민주주의인가?”(Why democracy?)라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한다. 즉 통치형태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의 조정을 위해 고안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retorius(1988:331)는 제휴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규범적으로 설명한다;

- (1) 개인성(individuality)과 집단자유(group-freedom)
- (2) 기회의 균등성
- (3) 자기동일성(identity)과 자아존중(self-respect)의 보장
- (4) 사회적, 경제적 부
- (5) 내, 외적 평화와 안전

Ackron(1988:39)도 민주주의의 조건을 정의하면서, 사회-경제적 전제조건과 정치적 전제조건으로 분류한다.

- 사회-경제적 조건:

- (1) 국가의 부
- (2) 공업화, 도시화, 고소득 및 교육
- (3) 의사의 합치(consensus)

- 정치적 조건:

- (1) 효율성(effectivity)과 정통성(legitimacy)
- (2) 통치조직
- (3) 시민의 정치문화 (political culture)

언어학자들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은 그 단어와 대칭되는 개념을 상정하는 것이라 제안한다. 예를 든다면, “사랑”을 설명할 때 “증오”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다. Barkhuizen(1990:7)은 흥미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통치형태를 기술한다:

국가의 통치는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 아니면 모든 사람에 의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 각 형태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통치할 경우 선하며, 이기적인 욕심을 위할 경우 악한 통치이다.

선한 경우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 되고, 악한 경우 폭군정, 과두정, 중우정으로 타락한다.

민주주의는 중우정치와 구별되어야 한다. 시민(*demos*)는 무리(*ochlos*)와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은 통치에 질서와 교양으로 참여하는 집단을 지칭하지만, 통제 불가능하고, 교양 없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폭도”(mob)에 의한 통치가 중우정치(ochlocracy)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말할 때 무리나 폭도에 의해 통치되는 반대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Ackron(1988:54-55)은 개인에게 완전하고 자유로운 자기완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치가 진정한 통치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Plato도 인정했듯 이 형태는 결코 이상적인 통치형태가 아니며, Plato와 Aristotle 이후 인간은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통치형태를 실현시키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 2.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국가의 임무

Marshall(1991:32)은 국가의 의무를 정의 실현, 책임정치, 봉사행정, 통치권 확립이라는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정의실현이란 법과 정의를 증진하고, 불법과 불의를 교정하기 위한 강제적인 힘이다. 우리는 의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무를 수행하는 정부를 국민은 지원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책무에서 이탈한 정부를 본연의 위치에로 복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유일하신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집합적인 정치적 책임을 부여하시어 우리의 선을 증진할 책임있는 정부를 선출하게 하셨다. 이러한 책임이 민주주의적인 통치형태를 통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구가 조직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소수 집단의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는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의 국민의 공동체이며, 그 안에 특정의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권위체계가 있다. 이 권위체계가 정부를 구성하지만, 정부의 책임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부

는 공공의 정의를 증진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수행할 충분한 권력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강제적인 조세를 통해 정부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조세는 공공의 정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 및 단체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악한 현실세계에서 법에의 복종과 범법자의 처벌을 위해 강제와 힘을 정부가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이 강제력이 공공의 정의구현을 위한 목적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형태와 책임에 관한 Calvin의 입장을 De Gruchy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한다.(1986:24) 성경은 구체적인 정부형태를 명령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국가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바른 경건생활을 지원해야 이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기난하고 불쌍한 계층을 돋고, 무죄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보호해야 한다고 Calvin은 강조한다. 이러한 정의 구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는 강제력을 사용할 권리를 소유할 뿐 아니라 엄밀한 자기인식과 통제과정을 거쳐 국민의 진정한 행복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전쟁을 선포할 권리도 있다.

## 3 교회의 임무

국민들이 서로 우애하고 형제애를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책임을 교회는 담당하고 있다. 교인을 섬길 뿐 아니라 불의에 대해 경고하는 예언자적 태도를 가져야 하며, 회중으로 하여금 궁핍과 곤경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도록 권고하는 책임을 교회는 감당해야 한다(Marshall, 1991:39).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교회는 자유로워야 하며 국가의 권력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삶의 현장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적용해야 하고,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

Wijnbeek(1990:4)는 교회가 시편 제2편의 메세지를 국가가 순종할 것을 기

대하기에 앞서, 먼저 교회가 능력있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가 실제로 그 능력을 보여 주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가에 대해 시편 2편을 순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는가?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기독교인 개인의 정치적 책임과 기구로서의 교회의 정치적 책임을 일치시키지는 않으나, 상호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양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근본적으로 양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기에 양자의 정치적 책임은 상호 보충적이다.

De Gruchy(1986:27)는 다음과 같이 교회의 책임을 요약하고 있다:

- (1) 도덕적 기준을 사회에 제공
- (2) 국가의 기원과 그 권력의 한계를 인식케 함
- (3) 정의실현 요구
- (4) 가난하고 불쌍한 계층의 보호 및 권리 옹호
- (5) 양심권 수호 및 활동 지원
- (6) 교회를 예배와 하나님의 권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만들어야 함

#### 4. 교회와 국가의 관계

대체로 칼빈주의적/보수복음주의적 교단에서 독재/권위주의적 정부를 옹호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정부가 선하든 악하든 간에 국민들이 복종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Calvin의 사상은 정치권력이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여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다.

정치권력의 권위와 강제력이 하나님에 의해 부여되었기에 이 권위는 근본적인 한계성이 있다. 즉 “상위의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력은 부여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권력을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져야 하며, 국민 행복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집권자는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에 적합하게 통치하여야 하며, 집권자 자신이

하나님의 신하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순종해야 한다. 특정한 정부 형태를 하나님은 지시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을 돌볼 것을 명백히 명령하고 있다.

심지어 폭군에 대해서도 복종의 의무를 강조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나 동시에 Calvin은 그의 Institutes 마지막 부분에서 폭군정치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점은 개혁주의 전통의 흐름에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혁명의 가능성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Calvin은 이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Calvin은 분명히 설명한다(De Gruchy, 1986:24). 두 제도는 많은 점에서 서로 상이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이 있고, 국가의 책임은 교회로 하여금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정의와 질서, 평화를 보장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다. 비록 교회와 국가의 역할이 서로 매우 다르더라도, 양자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목적이 있기에 양자는 상호 연결되며 부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Calvin은 주장한다.

#### 5. 기독교인의 정치적 책임

개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의 정치적 책임과 기구로서의 교회의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주장한다. 양자의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소속됨에서 비롯되므로 상호 보충적이며, 서로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Du Plessis(1985:18)는 국가권력의 절대화는 기독교인들이 이생에서 영원한 나그네라는 사실로 인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신자는 종국적으로 이생의(정치적인) 왕의 백성이 아니라 내생의 영원한 왕국의 백성이기에, 여러 형태의 권력의 우상화와 유토피아사상은 원천적으로 합치될 수 없다.

교회의 자체로서 기독교인 개인은 이미 교회의 정치적 책임에 동참하고 있다. 교회 자체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적 조직에 연관되어 있지 않으나, 신자

개인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조직 또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또 이런 경우 정치적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소속 정당의 확장과 정책의 선전을 위한 충성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De Gruchy(1986:33)는 능동적인 개혁자로서의 기독교인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 신자 개인은 정치에 대해 민감하고, 연관되어야만 한다.
- (2) 신자는 정부를 존중하고 통치자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
- (3) 기독교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하나님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책임이 있다.
- (4) 신자는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께 신실하여야 하고, 이웃과 국가의 공동선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Kempff(1987:17)는 정치와 행정의 부정부폐에 대해 기독교인은 강력히 저항해야 하고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는 세상에 속한 자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며, 그리스도와 그의 명령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어 지도자들과 이웃과 통치자들에게 신자됨의 빛을 비추어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자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소금의 역할은

- (1) 부폐 방지 작용
- (2) 음식의 맛을 돋구는 작용이다.

이와같이 신자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으나 결코 세상에 속하거나 죄악된 삶을 살 수 없다. 신자가 이러한 평범한(죄인인) 인생이 아닌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신자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 6. 개혁주의 사상과 민주주의의 상호 영향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신한국 창조”라는 슬로건 아래 종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여기에는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라는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정치에 신앙과 예배라는 요소를 의식적으로 배제함으로 온연중에 정치는 신앙과 무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따라서 정치 자체가 절대화되고, 심지어 우상화될 위험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성경적 관점에서 이탈하여 국가의 권력(법과 질서)에 한층 민감한 신자의 모습을 비기독교인들은 의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태도를 두 가지로 오해하고 있다(Du Plessis, 1985:18).

- (1) 근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중상하기에 전제정치(authoritarianism)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권위에 대해 ‘아멘’(순복) 하는 경향이 강하다.
- (2)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상황에 민감한 자유주의자(liberalist) 또는 혁명론자의 가능성.

이런 오해를 교정하고,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제기되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긴요하다.

과거 유신 독재 시절 보수교단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안일한 교단 이기주의로 변질시켰으며, 신앙과 예배의 의미를 축소시켰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배신했다고 고발했던 일부 진보적 교단의 비난은 정당하였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집권계층의 호감을 얻어 교세를 유지/확장하고자 교단지도자들이 정부에 대해 더 독재적이 되도록 지원한 셈이 아니었던가?

또한 자본주의를 모든 사회악의 근원으로 보거나 사회구원은 마르크스적 방법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혁명론자로서의 기독교인의 인식을 제공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책임에 틀림없다.

정치인, 관료의 정치적 관점과 신앙인의 기독교적 관점이 서로 합치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좌익과 우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더구나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교회에 의한 민주주의의 오용(Duvenhage, 1988:3; Van Nieuwkerk, 1988:4)과는 달리, 이 상이한 두 영역이 상호 영향력 아래 합치하는 적극적 경우가 있다. 특히 기독교적 정당이 정권을 차지할 경우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비기독교적 정당의 수권의 경우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다.

최근의 Bophuthatswana의 기독교민주당(CDP)의 경우, 1992년 선거시 당의 강령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의식하며 감사하고 있는 정당임을, 나아가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있게 당의 지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전심으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뢰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CDP는 미래를 두려워 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CDP의 정책에 의하면 기독교 정당의 국가형태는 민주주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독교'라고 서술될 수 없다고 한다.

CDP의 정책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CDP's Election Manifesto, 1992)

- (1)국가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에 대한 인정
- (2)기독교적 가치를 근간으로 한 국민생활의 향상
- (3)개인의 자유, 해방, 예배의 자유 및 기타 기독교인으로서 누려야 할 최대한 자유 보장
- (4)민주주의적 요소의 확고한 유지와 국민에 균등한 기회 제공
- (5)무차별, 동등한 근로조건, 정의와 존중으로 다스려지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인정
- (6)모든 영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추구
- (7)국민의 현실생활을 충족시키고 미래의 필요와 기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당과 국민 능력의 연합.

이와 같은 강령에서 개혁주의적인 사상이 민주주의의 강화에 적극적인 기

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날 뿐 아니라, 동시에 민주주의가 기독교적 관점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

#### IV. 결 론

민주주의는 국민에 권력이 있음을 뜻하나,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롬 13:1-7; Malan, 1989:38). 그러므로 문민정부 내지 민주주의가 필히 정의와 번영의 시대를 가져다 주리라 믿어서는 안된다. 통치권력은 국민에 군림하기 이전 먼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다. 통치권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다수의 국민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보다, 그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위가 교회적으로 오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예배와 신앙도 정치인에 의해 오용될 수 있다. 국가는 하나님의 의탁한 분명한 사명이 있고, 교회는 국가와 권력, 정치지도자 등과 관련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축약하자면, 이러한 모든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개혁주의 사상과 민주주의의 궁정적인 합치점이며, 이럴 때 만인을 위한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근간으로 한 기독교적 고백의 바탕 위에 한 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CDP와 같은 기독교 정당을 창설하고, 그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지지, 감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Kraaij, 1989:20). 이는 한국에 개혁주의적 사상이 없거나, 또는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개혁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논의의 필요가 요청되며 때문이다.

## 참고문헌

1. Ackron, F. L., *Die Voorwaardes vir die Demokrasie*, 1988(In Faure, A. M. et al. Suid-Afrika en die Demokrasie. Owen Burgess : Pinetown).
2. Baradat, L. P., *Political Ideologies*(Mira Costa College: Prentice Hall, 1991).
3. Bophuthatswana's Christian Democratic Party's Election Manifesto, 1992.
4. De Gruchy, J. W., 1986. *Christ and/or Ceasar?*(In Swanepoel, R. & Van der Walt, B. J.(eds.), *Orientation*. Numbers 40-43(Potchefstroom).
5. De Plessis, L. M., 1985. *Perspektief op*, Mensenregte. (In Du Plessis, M. L.(red.) Woord en Daad. Deel 26, Potchefstroomse Univ. vir C.H.O.)
6. Du Plessis, L. M. 1985. Perspektief op Wet en Orde(In Du plessis, M. L. (red.) Woord en daad. Deel 25. Potchefstroomse Univ. vir C.H.O.).
7. Duvenhage, B., *Kerklike misbruik van Demokrasie*(In Duvenhage, B. (red.) Die Kerkblad. Vol.91.), Potchefstroom, 1988.
8. Fowler, S., *National Identity and the renewal of Democracy*(IRS-Study pamphlet, Potchefstroomse Univ, 1991), vir C.H.O.
9. Kempff, D., *Christene in die Verkiesing*(In Kempff, D.(red.) *Die Kerkblad*, Vol. 89.), Potchefstroom, 1987.
10. Kraaij, H., R500 vir 'n dollar...?(In Van der Elst, J.(red.) Woord en Daad. Deel 29. Potchefstroomse Univ. vir C.H.O.), 1989.
11. Malan, C. J., 'Valse demokrasie'(In d'Assen Ville, V.E.(red.) Die Kerkblad. Vol.92. Potchefstroom), 1989.
12. Marshall, P., *A Calvinist Political Theory*(IRS-study pamphlet, Potchefstroomse Univ. vir C.H.O.), 1991.
13. Pretorius,L. 1988. regverdigings vir Hervorming. (In Kaure, A. M. et al. Suid-Afrika en die Demokrasie. Owen Burgess: pinetown)
14. Rauche, G. A. 1988. Die konsep Demokrasie. (In Faure, A. M. et al. Suid-Afrika em die Demokrasie. Owen Burgess: pinetown)
15. Spoelstra, B. 1977. *Die Calvinis se Antwoord op Meerderheidsregering in Suid-Afrika*. ABC-kongres, Potchefstroom.

## 기독교사상연구 제2호

발행일 : 1995. 2. 28.

발행인 : 오병세  
편집인 : 전광식  
발행처 : 고신대학교 출판부

등 록 : 제 4 - 22호  
606 - 70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49-1 고신대학교  
고신대학 출판부  
☎.(051)414 - 6063

값 3,500원\* 판권 고신대학교 소유